

“사업추진 위한 공간 확보 급선무”

〈면에서 계속〉그러나 기존 중앙신도회 건물 부지만으로 부족해 조계사 땅을 증여받고 총무원이 20억 상당의 인근 토지를 구매해 현재 규모로 건립이 확정됐다.

건립이 시작된 후 건설비용 등 관련 비용 일체가 총무원에서 지급되고 있고 중앙신도회는 부담금 15억 중 5억원을 입금한 상태다. 조계종 출판사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도 입주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 정도를 출연했다.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조계종 전법회관. (사진=박재원 기자)

결국 건물의 '주인'이 종단이고 중앙신도회와 산하 단체들은 '입주자' 신세가 된 것이다. 전법회관 관리의 종단과 중앙신도회, 입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현재 입주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입주 단체는 확정됐지만 단체들의 상황과 재정, 주변상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협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005년 11월, 3년의 공사 끝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개관했다. 하지만 개관 2년도 채 되지 않아 기념관 내 공간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기념관 1층에 문을 연 '종합민원실'은 불과 1년 만에 업무를 축소했고, 그 자리에 '직할교구 사무처'가 들어섰다. 조계종은 오는 11월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서울 인사동)와 전통불교문화센터(충남 공주시)가 완공되면 어느 정도

전법회관 입주 놓고 단체들간 분쟁 우려 “포교·신도단체 자립노력 필요” 목소리도

공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사 교육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 공간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관 1층에는 파라미타가, 3층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교류회가, 4층에는 불교여성개발원과 불교상담개발원이 입주해 있다. 강의실은 4개에 불과하다. 조계사 주지 원화 스님은 "교육관 건물은 현재 노후로 인한 누수 등으로 인해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교육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계사는 지난해 교육관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현재 9월 완공을 목표로 시인선원을 건립 중이다.

이렇다 보니 "포교·신도단체들이 공간 확보를 위한 자립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불교단체 관계자는 "조계사 교육관 입주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공간 문제 해결을 포교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공간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번 조계사 교육관 입주단체 사태는 포교·신도단체들의 '사무실 공간' 문제를 넘어 포교원과 산하 단체들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문제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한 포교단체 실무자는 "종단이 필요에 의해 중립으로 포교단체를 설립해 놓고 그동안 공간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포교원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단체와 포교원의 관계정립이 새롭게 되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는 "단체들의 공간 문제에 대해 포교원이 뒷지지고 있지 말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법회관의 좁은 공간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려다 보니 공연히 단체들끼리 분심(分心)만 일으키게 되는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실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전법회관 공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입주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하고, 입주하지 않는 단체들의 독립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포교원과 단체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월 10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원) 제10차 회의에서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신도교무공급으로 건립되고 있는 전법회관에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포교·신도단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라며 "종단이 설립한 포교단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 김영일 포교차장은 "종단 설립 단체에 대해서는 종단이 포교업무의 바탕이 되는 공간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전법회관 내에 산하 포교·신도단체들이 모두 입주한다면 단체들 간의 결집과 소통도 원활해져 시너지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태고종 '영산재' 세계 무대에

프랑스 파리 등 3곳서 시연...3월 26일~4월 4일까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프랑스 파리과 리옹, 생갈렝 등3개 도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시연한다.

'세계 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돼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연에 태고종에서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인공 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 및 이수자와 전수생 30여명 등 총 40여명이 참여한다.

당초 프랑스 측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파리 소르본 대학 인근의 오디오리움 드 생페르맹에서만 시연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제2의 도시인 리옹시장이 영산재에 큰 관심을 보여 리옹시립극장에서 1회, 남부 소도시 생갈렝에서 1회 추가 시연해 줄

것을 주최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영산재는 이번 파리 시연에 유네스코 본부 문화유산국 릭 스미스(Rieks Smeets)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도 초청한다. 유네스코 측에 영산재 시연을 보여줌으로써 세계문화유산 예비 지정리스트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운산 스님은 "이번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쳐 2008년 10월 세계문화유산 총회시 프랑스, 아프리카, 캐나다 등 불어권의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 계기를 삼을 계획"이라며 "이번 시연을 통해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정수를 기억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인재양성·노후복지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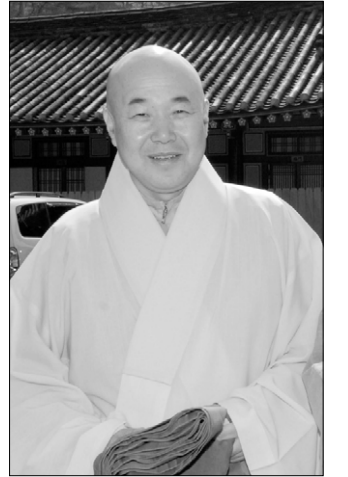
법주사 주지후보에 노현 스님 선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 주지에 노현 스님이 합의를 내렸다. 법주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0일 산중총회를 열고 법주사 제30대 주지후보에 노현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선출했다. 총회는 교구인단 260명 중 160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법주사는 2월 22일 문중대표 50명 중 43명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노현 스님을 합의추대했다. 노현 스님은 교구 운영에 대해

"스님들의 노후 복지 안정을 위한 사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수행과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스님은 "법주사가 지역사 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 스님은 1982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고운사 재무·총무국장, 각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각화사 태백선원장



제30대 법주사 주지후보에 선출된 노현 스님.

과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손호선 기자

문화재청장에 이진무씨

국립중앙박물관장 최강식씨 임명

3월 7일 청장 및 차관급 인사에서 문화재청장에 이진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임명됐다. 불자로 알려진 이 청장은 한반도 청동기문화 고고학자 출신으로 한국고고학회 회장,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역사학 전공자로는 처음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된 최강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신라사 전공으로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고려대 박물관 등을 역임했다. 불자인 최 관장은 3월 13일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황룡사 등 불교



이진무 청장 최강식 관장

문화재 복원과 불교중앙박물관의 불·법·승 기획전시 등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섭 기자

10·27 특별법제정 공청회 4월 2일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가 4월 2일 열린다.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원화)는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타 스님은 "특별법 제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방부 및 법제처 관계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종단의 공식 입장을 전하고 이번 주장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은 스님(조계종 사회교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6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턴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야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만 부산불자님들의 교육과 신행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한 21세기 녹아원이 될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이 개관함에 따라 한국불교의 성지인 부산을 인류와 세계 평화의 전방지로 삼고자 합니다. 200만 부산 불자님들의 신행과 교육을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여려사가 되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상의 바쁜 걸음 이제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관에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제1기 로터스(연회)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 공부 2%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체계적인 경전강좌, 교리와 수행의 일치, 역사와 미래의 조망, 국제불교교류 등으로 여러분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 수업시간 : 매주 목·금요일(1년과정) 19시-21시
- 입학식 : 3월 27일(목) 19시
- 접수기간 : 2008년 2월-3월 말
- 교육과목
 - 이항경,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무량수경, 인도불교사상, 중국불교사상, 한국불교사상,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동남아불교의 현황과 전망, 세계불교의 흐름과 전망, 비교종교, 포교론, 상담과 복지론, 수행과 실수, 불교문화
- 강사 : 부산불교최고지도자이카데미, 부산불교전통문강원 강사 외 각계 권위자
- 입학금 : 50,000원 7. 수업료 : 월 40,000원
- 모집인원 : 120명 내외
- 입학자격
 - 불교신앙교육을 수료한 불자, 불교인문자격증을 수료한 불자,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
- 특전
 - 포교사로서 자격시험 응시, 국제불교교류, 각계 권위자 초청강연, 문화 행사, 수계식, 재적사찰 안내

제8기 부산불교최고지도자 이카데미 신입생 모집

최고 지도자의 자부심을 느껴보십시오.

우주만법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CEO의 마음이 기업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과 사업을 보다 유능 하게 이끌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 교육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19시 - 21시
- 입학식 : 2008년 3월 24일(월) 19시
- 접수기간 : 2008년 2월 - 3월 말
- 강의내용 : 불교사상, 불교의 사회, 자아명상, 문화의 이해와 중진, 리더십교육, 상담심리, 사회복지
- 강사 : 정인스님, 율호스님, 수진스님, 상현스님, 지만스님, 통관스님, 박영서교수, 박영준 교수, 김용표 교수, 이우대 박사 [각계 권위자 초청 특강]
- 입학금 : 100,000원(교재 제공)
- 수업료 : 년 600,000원
- 모집인원 : 60명 내외
- 입학자격
 - 각 사찰 및 시민의 신도단체 임원, 신행단체 임원 및 포교사, 신행학교, 불교대학 졸업생
 - 불교의 지혜를 생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찾아오시는 길

부산불교신도회관 (1층 통합연제지점)

문의: 051)853-8539, 051)853-2021